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국문요약

분단정권 수립 60년을 맞으며 어느덧 북한학과 통일학이란 말이 생소하지 않은 학문이 됐다. 북한 및 통일연구는 지역연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우리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학의 일부이다. 따라서 북한학은 북한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와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북한 전문가 양성과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식론적 제약과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북한연구방법도 전체주의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고, 일상생활연구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내재적 접근'보다 인류보편가치에 입각한 보편주의적 북한접근('외재적 접근')과 지역학(area studies)으로서의 북한연구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인류 보편적 잣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당과 국가의 억압과 통제연구에 치중한 전체주의 접근법이 부분적인 적실성이 있지만, 이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파벌갈등, 이익집단갈등 등 북한정치의 동학을 파악하기 어렵다. 내재적 접근의 소개는 노태우 정부의 북한자료의 일시적 개방조치 또는 '개방목인'과 함께 전체주의 접근법에 의존했던 기존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해 북한연구의 균형을 잡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재적 접근이 방법론보다는 인식론 수준에서 논쟁이 벌어져 북한연구의 분석보다는 해석에 안주하는 경향과 이론의 저발전 경향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연구는 상부구조중심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북한연구의 새로운 시도하고 할 수 있다. 미시-행태연구에 치중하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사·미시

사연구는 거시-구조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세계경제로의 전면적 편입을 고려할 때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자본주의세계경제로의 편입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갈등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단순화해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연구에서 세계체제분석(world system analysis)의 적용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예외주의와 이론적 고립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인식론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서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북한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식론, 방법론, 분석 수준, 분석단위, 분석기법 등으로 분석층위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학, 북한연구방법론, 전체주의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일상생활연구, 세계체제론

I. 머리말

반만년 이상 단일생활권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외세에 의해 분단됐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도 학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동국대학교에 북한학과가 창설된 이래 명지대, 고려대 서창(세종)캠퍼스, 관동대, 선문대 등에 북한학과가 개설됐다. 동국대, 이화여대 등의 일반 대학원에도 북한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되고, 북한전문대학원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되는 등 북한학에 관한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인제대학교에서는 학부에 통일학 협동과정을 두고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립 서울대도 2006년 4월 통일연구소(2008년 8월 통일평화연구소로 개칭)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북한·통일·평화문제 연구에 뛰어 들었다.¹⁾

분단 정권 수립 60년을 맞으며 어느덧 북한학과 통일학이란 말이 생소하지 않은 학문이 됐다. 하지만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관한 젊은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북한학과도 존폐기로에 서 있다. 이미 관동대, 명지대는 북한학과를 폐지하거나 폐지할 예정이고, 선문대는 동북아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일부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북한·통일문제도 이제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에 관한 정보가 많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학, 통일학의 고유성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다. 하지만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북한변수가 우리 삶의 일부를 지배하기 때문에 북한문제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와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북한 전문가 양성과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를 지속해야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식론적 제약과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각 학문영역에서의 북한연구가 축적됨으로써 학제간 연구도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의 북한연구는 시대의 아들이며 환경조건변화의 산물이고 특수 한국적인 문제의식을 떠날 수 없다”는 지적처럼, 한국에서의 북한연구는 존재구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지역통합이 이뤄지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
- 1) 뒤늦었지만 국립 서울대에 통일연구소(통일평화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통일·평화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전략개발과 통일 이후 통합방안 등을 장기적 연구과제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립 서울대의 통일평화연구소라는 이점을 살려 대학 통일연구의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경련 등 경제관련 단체와 기업들로부터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북한학·통일학·평화학 연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 것이다.

북한연구에 있어 분단유지적 시각을 넘어서 민족화해와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북한연구방법도 전체주의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고, 일상생활 연구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내재적 접근’보다 인류보편가치에 입각한 보편주의적 북한접근(‘외재적 접근’)과 지역학(area studies)으로서의 북한연구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인류 보편적 잣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학이란 무엇인가란 원초적인 물음에 답하고 주로 북한연구현황과 과제를 방법론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북한연구 방법론은 전체주의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일상생활연구방법론 등이다.

II. 북한학의 필요성과 연구동향

1. 북한학의 필요성

북한 및 통일연구는 지역연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우리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학의 일부이다. 따라서 북한학은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학과 통일학²⁾은 분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학과 통일학은

2) 통일학과 통일연구방법론은 유호열, “통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정치

지역학이자 한국학의 일부로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이다. 근대화에 뒤쳐진 우리민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자체의 힘으로 해방되지 못하면서 외세의 개입에 의한 분할지배와 전쟁으로 이어지고 분단이 고착화됐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가 학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함으로써 이질화는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에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서의 분단체제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분단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탈이데올로기화가 진행되고 유럽연합 등에서 지역통합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통일문제는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다.

“북한도 엄연히 우리 조국의 일부일진데 우리 조국의 절반 땅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현실에 관해서 몰라서야 되겠는가?”³⁾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북한 및 통일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의 진전, 북한 내부의 계획경제 개선 조치(7·1조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북-미 대화 등 북한 변화의 구체적인 조짐이 나타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욕구가 높아졌다.

분단 이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으로 통일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냉전시시대에는 상대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자폐적 정의관(self-righteous posture)’에 따라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객관적 연구가 어려웠다. 1988년

학의 성찰과 전망(1996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논문집) ; 김학성,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pp. 203-231 등을 참고 바람. 유호열의 주장에 의하면 통일학은 여타 학문과 구분되는 4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통일학은 당위성의 학문이다. 둘째, 통일학은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학문이다. 셋째, 통일학은 미래학이다. 넷째, 통일학은 학제간 학문이다.

3) 박동운, “북한연구의 이해와 현황: 정치분야”, 『북한』, 1975년 1월호, p. 176.

무렵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일어나고 북한자료의 개방과 함께 통일·북한 연구의 제3세대가 출현하였다.⁴⁾ 1980년대 말 이후 우리 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북한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94년부터 대학에 북한학과의 설치됨으로써 체계적인 통일·북한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북한연구학회 등 통일관련 학회도 설립되어 북한학의 저변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학 위주의 북한·통일연구가 경제학, 사회학, 문학 등 거의 모든 학문으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다.

2. 냉전시대 북한연구 동향: 전체주의접근법과 비교정치방법론

냉전시대 북한은 ‘자(동족)’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타(적대단체 혹은 경쟁체제)’임을 간과할 수 없는 일견 모순된 인식을 우리는 지니고 있었다. 하나의 전통과 주체성을 한반도에서 지키고 이어왔으며 또 이어가야 한다는 민족사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당연히 ‘자(동족)’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의 뼈아픈 경험이 구조화된 현실적 대립관계와 직면할 때 북한은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을 주고 있는 ‘타(적대단체)’임에도 틀림없다. 이러한 인식의 분열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의 시급성도 북한연구의 필요성도 적절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연구시각이 정치 환경이나 필요에 의해 제한되었고 그 내용도 정부당국의 통일관의 천명 및

4) 북한연구의 1세대는 김남식, 김창순, 양호민 등으로 김남식과 김창순은 북에서 내려와 북한실상을 소개하고 연구한 학자이다. 2세대는 주로 미국 등에서 국제정치학과 비교정치학을 연구한 이상우, 김학준, 김덕, 전인영, 장달중 등과 국내에서 비교정치학을 연구한 민병천 등을 꼽을 수 있다. 3세대 북한연구자들은 서동만, 이종석, 백학순, 고유환, 김영수, 류길재, 김연철, 김근식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궤를 같이하는 시론, 정보분석류와 반공홍보자료, 기타 월남·귀순 인사들의 내막 폭로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맹목적인 냉전적 반공의식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상황 하에서 북한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 이기에 앞서 경쟁과 타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접근법은 분석에 임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스스로의 연구 방향을 잡고 자료선택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정의 체계 혹은 조직화된 개념이다. 1950년대 이전까지의 공산주의정치 체제에 관한 접근법은 방법론적 예외주의(methodological exceptionalism) 또는 ‘이론적 고립주의(theoretical isolationism)’의 그늘에 가려있었다. 북한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구미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연구에서처럼 북한연구에서도 북한체제의 독특함과 특수성을 유달리 강조하면서 개별기술적인(idiographic) 연구나 특정한 접근법(전체주의 접근법)만을 고집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연구 자체는 오랫동안 법칙 정립적인(nomothetic) 연구를 지향하는 사회과학의 본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⁵⁾

냉전시대 북한연구방법론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전체주의 접근법이다. 전체주의 접근법은 1920년대와 1930년대 히틀러의 나치정권과 무소리니의 파시스트정권의 정치현상을 모델로 해서 이를 스탈린의 소비에트정권에 적용하여 전체주의독재국가들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서구에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 공산주의체제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한 분석모델이다. 이 접근법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자는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이다. 이들이 집약한 전체주의 개념의 상호 연관된 특징 내지 증후군(syndrome)은 ① 공식 이데올로기 ② 독재자에 의해

5)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p. 10.

영도되는 단일대중정당 ③ 폭력적 경찰통제제도 ④ 매스컴수단의 독점 ⑤ 군부세력의 독점 ⑥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 등이다.⁶⁾

전체주의모델 접근법은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정태적(static)이고 서술적인(descriptive) 성격 때문에 정치체제의 동태성(dynamics)을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주의 모델접근법에 대한 비판을 요약하면 첫째, 전체주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이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규범적 함축성 내지 '가치부하적(value-loaded) 속성'에 대해 비판한다. 즉 전체주의 개념은 흔히 특정 유형의 정치체제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된 감이 짙으며 특히 이는 냉전적 수사와 선전 등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객관적 정치 분석을 위한 개념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주의 접근법의 방법론적 문제점은 유사현상간의 상이점을 밝혀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에 관한 기존의 개념구성은 유사현상으로 파악된 공산주의와 파시즘 간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지 못할뿐더러 공산주의정치체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전체주의 모델이 전체주의적 독재자의 개성(personality) 유형을 그 개념구성에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취약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터커(Tucker)는 전체주의 독재자의 퍼스낼리티가 그 정치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독재적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할 동기요인은 스탈린이나 히틀러 등의 편집형 퍼스낼리티(paranoid personality)임을 주장한다.⁷⁾

6) C. J. Friedrich and Z.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pp. 9~10 ; 같은 제목의 2nd,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6), pp. 21~22에서 ⑦ 팽창주의(expansionism)와 ⑧ 법과 법원의 행정적 통제를 추가했다.

7) Robert C. Tucker,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vol. 17, no. 4 (1955), p. 567.

넷째, 전체주의 모델이 비교정치, 비교사회학 분야에서 평가절하된 보다 현실적인 계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소련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탈전체주의화 경향이 공산권 내부의 다원화 및 다중심화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주의모델은 공산주의체제 분석에 적실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 전체주의모델은 권력이라는 중심개념을 토대로 혁명 후 초기단계 또는 동원단계(mobilization stage)의 특징들에 준거하여 마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전체주의접근법은 공산정권의 안정성과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체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는 비판론에 직면했다.

전체주의 모델접근법의 약점은 공산주의정치체제에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변화의 예는 ① 정치체제의 구조에서 1인에 의한 일당독재체제로부터 집단지도체제로의 변화 ② 테러의 감소 ③ 중앙집권화된 통제 경제체제로부터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 및 완화된 중앙집권적 관리체제로의 변화 ④ 외부 힘에 의해서 형성된 공산국가들이 예측적인 위성국가의 지위로부터 독자적인 민족적 공산국가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⁸⁾

김연철이 주장한 것처럼, 전체주의 접근법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두 가지 가정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첫째, 당과 국가가 사회를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으로, 당과 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가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체주의 문제 틀은 집행과정인 정치과정의 문제들을 주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의 정치과정을 살펴보면, 중앙당의 결

8)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3.

정이 ‘유일명령’으로 하달되지만, 중간 및 하부단위에서 집행되는 과정은 혼란과 무질서, 자의적인 재해석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나 결정, 혹은 지시 등 지도부의 의지를 현실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데올로기가 사회현실을 규정하고 있다는 가정의 문제이다. 전체주의 문제 틀은 이데올로기를 사회의 추진력으로 보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분석을 중시한다. 그 결과 전체주의 문제 틀은 그들이 그리는 사회보다 훨씬 더 이데올로기적이며, 북한의 이데올로기(주체사상 등)를 통해서 ‘사회현실’을 해석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문제 틀은 ‘사회적 과정’보다 ‘국가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지향의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결과’보다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의도’만을 주목하고 있다. 전체주의 접근방법은 사회 내의 역동성을 무시함으로써 사회적 무대에서 엘리트를 고립시키고, 정치적 지도부의 결정이 사회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주의적 엘리트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잉집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주의 모델은 지나치게 정태적이고 전체주의 내에서의 진화적인 변화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체제 내의 지역적·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이론적 취약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정된 이론모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모델접근법은 공산주의체제의 주요한 측면 내지 적어도 그 발전과정 중의 한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집권화된 정치제도와 리더십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경우 전체주의 접근법은 아직도 사용될 수 있다. 전체주

9)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위로부터 시각’과 ‘아래로부터의 시각’”, 『통일문제연구』, 제8권 2호 (1998).

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지만, 스탈린주의적 체제의 연구를 위해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루츠(P. C. Ludz)와 같은 내재적 접근론자도 주장했다. 루츠는 프리드리히 유의 전체주의론이 정태적이고 신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상태를 기술할 수 있을 뿐 지배구조와 지배조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루츠의 전체주의론에 대한 비판 동기는 그 이론이 나치즘과 볼셰비즘을 동일시함으로써 연구대상을 선차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구대상 자체가 그동안 변한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¹⁰⁾ 북한연구에 있어서도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접근법의 부분적 적실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김일성-김정일 지배하의 북한을 지독한 전체주의사회의 생생한 한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¹⁾ 냉전시대 북한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접근법은 전체주의 접근법일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연구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은 뒤져 있었다. 비교정치이론과 비교공산주의이론이 도입되는 시기였지만 북한연구에는 안병영¹²⁾ 등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곤 비교정치이론들을 북한연구에 도입하지 못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을 학문의 대상으로서 연구하기보다는 국가안보와 현실정책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실증성의 기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연구의 범

10)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 (2008 하반기), p. 29.

11) 전체주의 접근법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북한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Tai Sung An, “Communist Totalitarianism Revisited”,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7, no. 4 (Winter 1993), pp. 730-735를 참고 바람.

12) 안병영, 『현대공산주의연구』 (서울: 한길사, 1989); 안병영,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경연구』, 1975년 8월호;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 (1977).

위가 통일·안보에 한단계 되는 현상과 함께”, “피상적이고 평면적인 연구에 머물거나 주관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과 함께 “외국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적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¹³⁾

북한연구에 내재적 접근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연구의 방법론을 김남식은 9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했다.¹⁴⁾ 첫째, 역사문화적 접근법이다.¹⁵⁾ 이 접근법은 현재의 북한을 사회주의체제가 공유하는 일반적 속성과 전통문화의 전래적 요인의 혼합물로 이해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 이 연구의 특징은 현재의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그 이전의 공산주의운동과의 연관관계를 해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자칫 현 체제의 여러 특징을 빠짐없이 이전 사회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역사적 접근법은 북한의 특이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고유한 특질의 근원을 북한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고 있다. 역사적 접근법은 “역사적 형성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 때문에 북한과 같은 개별 공산주의 체제의 독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¹⁶⁾

역사문화적 접근을 변용하여 강정구는 역사 추상형 비교방법론을 북

13) 김남식,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문제점”, 『이대학보』, 1986년 10월 13일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1』 (서울: 한울, 1987), p. 6.

14) 양호민 외, 위의 책, pp. 6~7.

15) 안병영은 역사·문화론적 접근법에 대해서 “일정 사회는 역사적 형성물이고 그 사회가 전승하는 문화와 전통은 후세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문화가치로서 뿌리를 내린다. 역사·문화론적 접근법은 공산정권의 형성, 기능화 및 그 발전 양상이 이미 공산화 이전에 집적된 전통적 관례와 경험에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적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역사문화적 접근법은 현재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력을 구사하는 역사 내지 전통적 요인에 적절한 관심을 표명한다.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제1호 (평화통일연구소, 1977), pp. 127~128 ; 안병영, 『현대공산주의연구』 (서울: 한길사, 1982), p. 358.

16) 안병영, 위의 책, p. 358.

한연구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¹⁷⁾ 이종석은 역사상황적 접근을 제안하면서 분석수준 차원에서 역사문화론적 분석을 할 것을 제안했다.¹⁸⁾ 전상인은 ‘북한연구의 역사사회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칼 포퍼(Karl Popper)의 ‘역사주의’를 북한연구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¹⁹⁾ 포퍼는 역사주의란 역사적 예측을 사회과학의 기본적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목적은 역사전개의 저변에 깔려 있는 울동이나 유형, 법칙이나 경향을 발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²⁰⁾ 와다 하루키의 ‘유격대 국가론’,²¹⁾ 스즈

17) 강정구는 북한연구에 있어 ‘역사 추상형 비교방법론(historical projection comparative method)’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현대사에, 특히 해방 3년사 또는 해방 8년사에서 외세 개입이라는 외생변수를 통제하여 조선 사회의 내적 동력에 의해 역사가 진행된 시기를 측정 내지 가정하고 이 기간을 순수 해방 공간으로 설정한다. 순수 해방공간에서 외세의 개입 없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 규정된 내적 동력에 의해서만 역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어떤 개별 현상은 어떤 유형을 띠 것인가를 역사 추상이나 투영에 의해 역사 추상 모델을 만든다. 이 역사 추상 모델과 외세개입에 의해서 실제로 진행된 사회현상과를 비교하여 외세의 효과나 외세와 야합한 토착 계급이나 집단의 효과를 밝혀낸다. 이 역사 추상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민족 주체적 기준이나 정통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강정구, “연구 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28~29.

18) 이종석은 접근법과 분석수준을 구분하여 ‘역사상황적 접근’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특정한 역사적 상황(국면)을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친 현실 환원론적인 접근(현재주의 presentism)은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나 주제를 연구할 때 현재적 관점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88), p. 27.

19) 전상인, “북한연구의 역사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995년 12월 16일).

20) Karl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NY: Harper & Row, 1964), p. 3.

21) 와다 하루키 저, 고세현 역,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와다 하루끼,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키 마사유키의 ‘수령제 국가론’²²⁾ 등은 북한사회에 대한 역사문화적 접근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체주의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방 학자들이 스탈린체제와 파시즘을 포괄하는 유형의 사회체제를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들은 북한체제가 남북대결로 인해 ‘동원정권’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체주의 접근법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복합조직 접근법이다.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의 관리조직의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 역시 복합조직의 본질적 생리에 따라 움직이리라는 입장으로, 북한사회의 관료제화 현상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넷째,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이다.²³⁾ 이 접근법은 경제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근대화라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공통되는 획일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간 상이성이나 사회주의체제의 다양성을 간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다섯째, 이익집단접근법이다.²⁴⁾ 성숙한 사회주의체제의 경우에는 사

22) 슌스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23) 발전론적 접근은 주로 자본주의사회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장경섭·박명규, “북한사회 연구방법론: 비교발전론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995년 12월 16일).

24)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모델을 적용하여 북한의 체제개혁과 김정일정권의 내구력을 연구한 괄목할 만한 연구는 Bruce Bueno de Mesquita·모종린, “북한의 경제개혁과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 분석”, 『통일연구』, 창간호 (1997), pp. 49~68을 참고바람. 필자들은 “북한의 권력구조가 외형적으로는 김정일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북한 지도부는 구성원간의 현격한 정책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정치가 내부적인 갈등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종래의 접근방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들은 “북한지도부 내에 정책에 대한 의견차이가

회내의 다양한 제도적·기능적 부분 내지 집단 간의 상충적 이익이, 제도화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²⁵⁾ 북한의 경우에는 당내의 파벌투쟁을 집단 간의 기능적 이해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기능적 이해의 표출이 도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다만 관료체제 내부에서의 기능적 엘리트(테크노크라트) 대두 현상이 이런 접근법에 일정한 시사를 준다는 것이다.

여섯째, 엘리트 접근법이다. 이는 어떤 사회체제에서도 엘리트의 등장은 필연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엘리트와 정치체제, 엘리트의 등장배경, 엘리트의 개별적 성격분석, 그리고 엘리트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일곱째, 자유화 접근법이다. 이는 동구의 사태에서 시사를 받은 것으로, 어떻게 자유화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우리측의’ 희망을 반영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비교정치학의 주요 접근법인 체계이론(system theory)이 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사회체제를 투입-산출-피드백의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홉째, 통일 통합과정 접근법을 들 수 있다. 이에는 기능주의적 통합이론, 수렴이론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북한이 제의한 ‘연방제안’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존재하고 북한의 정책이 이와 같이 갈등을 통해서 조정되어 왔다면, 북한정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p. 52)”이라고 주장했다.

25) 이익집단접근법을 소련정치과정연구에 적용한 대표적인 학자는 스킬링이다. H. 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18, no. 3 (April, 1966), pp. 435~451 ; H. 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Revisited”, *World Politics*, vol. 36, no. 1 (October, 1983).

3. 탈냉전과 북한연구의 새로운 관점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개방이 본격화하면서 우리사회에서도 북한연구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분단유지적 시각을 넘어서서 민족화해와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더욱 절실”해졌다. 198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격화 추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평화구조의 정착과 민족분열의 항구화에 대한 민족 전체의 주체적인 대응을 절박한 과제로 요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시각’을 넘어 한층 넓은 역사적·사회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반영하여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북한바로알기운동’이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자세와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²⁶⁾

첫째, 철저한 객관성의 견지이다. 냉전 시대 우리에게서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관(官)의 독점, 이데올로기적 편견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인식조차도 어려웠다. 북한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사실인식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주어진 사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북한은 우리와는 상이한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의 운동법칙이나 인식 틀만을 가지고는 북한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 사회에 고유한 내적 논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지향적 자세이다. 우리에게 북한은 “통일되어야 할 나머지 반쪽”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지향적인 자세는 무엇보다도 민족에 대한

²⁶⁾ 후술한 내용은 김남식 등이 주장한 것을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1』을 펴내면서 서문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뜨거운 애정을 가질 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민족에 대한 애정은 자국의 민족사, 그중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통해서 민족적 진보와 사회적 진보의 궤적을 그려낼 때에만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세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에서 분단이 얼마나 커다란 규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무엇을 반대한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극복이라는 적극적 지향의 가치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존재를 민족사의 내재적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분단현실을 기정사실화하여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출현하게 된 발생론적 설명을, 개항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내재적 갈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일반성과 함께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각기 특수성을 갖게 되며,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진영에서도 ‘독자노선’을 걷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 인식에서는 어떻게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고, 각각의 부분에서 구체화되어 나갔으며, 또한 대중동원에서 일정하게 힘을 발휘하여 북한사회 전체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생활까지도 규정해 나가게 되었는가라는 일련의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체사상의 진위(眞僞)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현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상적 요인을 구조분석 속으로 포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8·15 전사(前史)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혁명전통론적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해방 이후의 행태들에만 집착

해 왔다는 데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에서 자신의 정당성·정통성의 근거를 규명하는데 반해, 북한은 오로지 김일성이 지도한 항일무장투쟁이 주체사상의 뿌리이며 북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원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을 이끌어 가는 ‘지도집단’=조선로동당의 주역들이 어떠한 배경과 사상을 지니고, 어떻게 활동해 온 집단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그 역사적 근원에서부터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탈냉전과 경제중심의 지역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살길은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청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의 평화통일에 의한 단결된 힘으로 세계의 국가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우선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남북경제의 교류확대와 점진적 통합에 의한 경제협력으로 서로의 경쟁력을 기르고 어려운 대외경제관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역사적으로 숙원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통해서 동반자관계를 이룩한 것처럼 남북한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서독의 오랜 교류협력, 소련의 개혁·개방, 미소간의 평화공존(신데탕트), 그리고 유럽연합의 지역통합노력이 결합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도 남북교류협력의 증대와 함께 동북아 지역협력과 통합노력이 함께 추진될 때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탈냉전 시대 북한인식은 정권담당자와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우리의 적이지만 북한주민은 우리 동포, 같은 민족, 자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포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냉전시대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북한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북한 연구를 제약해왔던 몇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²⁷⁾

첫째, 냉전이데올로기의 극복이 시급하다. 탈냉전과 남북화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인식은 상대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자폐적 정의관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북한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냉전적인 대북관을 극복하고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현지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최근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은 폐쇄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연구의 필수적인 요소인 연구의 대상에 대한 현장접근과 현지조사가 어려운 상태에서의 북한연구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이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태도측정이 불가능하고, 지도자와 당 그리고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²⁸⁾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연구는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직관을 동원하여 과학적 북한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자료의 접근과 활용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 원전자료를 특수자료로 분류하여 제한된 사람과 장소에서만 북한 원전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북한자료에 대

27) 고유환,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신문』 제154호, 1999년 4월 12일.

28) 큐란은 외관상 안정된 것으로 보였던 사회주의체제가 급속히 붕괴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p. 13. 서재진은 큐란의 선호위장 시각과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사회주의체제에서 개인들은 억압적인 체제로부터의 정치적 처벌은 피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면중복배(面從腹背)의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pp. 32-33.

한 접근이 용이치 않다. 그리고 북한의 공식 자료는 거의 대부분 선전자료이기 때문에 북한 공간자료의 신빙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북한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글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Ⅲ. 북한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의 논쟁과 공과

객관적인 북한연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북한적 요소’ 또는 ‘북한적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과 함께 주어진 사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연구자들이 1989년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개념 틀의 사용, 사회주의(레닌주의)정권들의 출현과 발전의 특징을 역동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실패한 양자택일적인 흑백논리, 그리고 사회주의(레닌주의)정권들의 제도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는 등 레닌주의 현상들을 익숙한 서구적 현상들로 분석적으로 동화시키는 이론적 취약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취약점은 북한연구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북한연구를 위해서는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되 그 사회의 고유한 내적 작동논리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의 내적 작동논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사회에 대한 ‘내재적(immanent) 접근’이 필요하다. 내재적 접근은 인식론적 수준에서의 관찰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인식론에 가깝다. 송두율의 주장에 의하면 내재적 접근은 “북한 사회주의가 스스로 제시한 이념을 그 경험적 성과

에 비추어 본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념과 경험의 긴장관계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다.”²⁹⁾ ‘내재적(immanent)’이라는 뜻은 우리 인식이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한다. 또 ‘내재적’이라는 뜻의 반대말은 ‘외재적(extern)’이 아니라 ‘선험적(transzendental/transcendental)’이라는 것이다. “내재적 접근방법이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고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는 ‘선험적 이념’과 ‘외재적’이라는 뜻을 혼동하다보니 ‘밖’에서 들여다본다는 의미에서의 ‘외재적’이라는 뜻을 ‘객관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오류에서 생긴 것이다.

1988년 말 재독학자 송두율에 의해 소개된 내재적 접근법³⁰⁾은 북한연구에 있어 전환적 의의를 갖는 획기적 사건이라 할 만큼 우리사회에서 북한연구 방법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내재적 사회주의 분석방법은 동독 연구자인 루츠(P. C. Ludz), 사회주의 비교연구자인 바이메(K. V. Beyme), 그리고 송두율에 의한 소련과 중국사회주의 비교연구에 적용되었다.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 국가 사회에 존재하는 일반성과 특수성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재적 접근법은 각국 사회주의에 내재하

29)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p. 256. 이념과 경험의 긴장관계는 불완전한 경험적 인간에 대하여 절대자인 ‘신’이라는 ‘한계이념’이 항상 설정된다는 뜻에서 칸트가 ‘내재적-비판적(immanent-kritisch)’이라는 ‘내재적’과 ‘비판적’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송두율 교수는 “내재적인 방법이 경험세계에 근거를 둔 방법이기에 때문에 내재적 방법이 무비판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연구방법론’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 또는 ‘내재적 접근론자’가 문제라는 식으로 비판의 초점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느껴진다”고 밝히면서 내재적 접근론자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을 꼬집은 바 있다.

30)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pp. 105~109; 송두율, “북한: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전망”, 『역사비평』, 통권 54호 (2001). 송두율이 밝힌 북한연구에 있어 ‘내재적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의 “제4부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205~262를 참고 바람.

는 이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자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사회주의를 ‘밖’에서 들여다보는 ‘선협주의’적 태도와는 달리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 독자성은 물론 그 발전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있다.

전체주의적 접근이 주로 역사적인 기술을 통해서 ‘개인우상’이나 ‘일당독재’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주로 분석하는 데 비하여, 수렴론적인 접근은 주로 산업화과정과 관료주의의 분석이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기능·구조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¹⁾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내재적 접근은 우선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예를 들어 사회적 평등)이 어떠한 ‘성과’로서 현재 사회주의사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형론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³²⁾

송두율의 주장에 의하면,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체제비교론과 전체주의이론 등이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즉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척도로 분석하려는 방법론적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 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인 접근태도는 이분법적 전체주의 이론적 접근태도나 기능주의적 산업사회

31) 1960년대 초부터 서서히 대두한 수렴이론은 평화공존 논리를 배경으로 해서 양 체제가 ‘산업사회’에 이르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점차 퇴색되고 두 체제는 서로 접근 내지 ‘수렴’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산업사회 내지 근대화이론에 근거한 양체제 수렴이론은 정치 분석 위주의 전체주의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고정 불변의 실체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양체제의 공존을 전제한 상대주의적 그리고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주로 경제, 과학 및 기술을 중시하면서 자주 본의와 사회주의간의 체제 비교를 분석의 중심적 과제로 삼았다.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pp. 207~208.

32) 송두율, 위의 책, p. 209.

이론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사회주의 스스로가 설정한 이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두울은 내재적 연구가 지녀야 할 두 가지 전제를 지적하고 있다. 북한사회주의 내재적 연구는 우선, 소련을 비롯한 동구, 중국 등 여러 사회주의와 ‘비교연구’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사회주의와 다른 나라 사회주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북한사회주의의 내재적 이념과 현실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에 관한 이해이다. 계급모순, 민족모순의 동시적 해결과제가 북한사회주의의 내재적 이념 즉 ‘주체사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재적 접근의 두 번째 전제는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이다. 주체사상이라는 북한 사회주의 이념을 전제하고 이 이념이 정치·문화·경제·사회 전 분야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하는 내재적 비판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³⁾

강정구, 이종석, 강정인, 김연철 등이 북한연구에 내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거나 내재적 접근방법에 관한 이론적 평가를 시도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에 관한 논쟁의 근본적 한계는 송두울이 밝힌 것처럼 북한연구를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으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고, 내재적의 반대말이 선형적이란 사실을 모르고 피상적인 논쟁을 한 것이다. 강정구는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법(internal approach)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재적 접근법을 외재적 접근법(external approach)에 대응하는 접근법으로 소개했다.³⁴⁾ 이종석의 경우 내재적 접근과 차별

33) 송두울, 위의 책, p. 212.

34) 강정구, “연구 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23~33.

화하기 위해 ‘내재적비판적 접근’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미 송두윌이 칸트의 인식론에 근거한 ‘내재적-비판적(immanent-kritisch/ immanent-critical)’ 접근이란 용어를 사용했음을 간과한 것이다. 이종석은 송두윌의 ‘내재적 비판적 사회주의 접근’과 자신이 주장하는 내재적비판적 접근은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내재적비판적 접근방법이란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나 집단의 내재적 작동논리(이념)를 이해하고 그것의 현실정합성과 이론·실천적 특질과 한계를 규명해내려는 접근 관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³⁵⁾

재독학자 송두윌에 의한 내재적 접근의 국내 소개는 탈냉전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연구를 모색했던 연구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북한바로알기운동’ 차원에서 김남식, 강정구, 이종석 등이 내재적 접근과 유사한 북한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독일판 내재적 접근’은 쉽게 확산됐다. 내재적 접근의 소개는 노태우 정부의 북한자료의 일시적 개방조치 또는 ‘개방목인’과 함께 전체주의 접근법에 의존했던 기존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해 북한연구의 균형을 잡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재적 접근이 방법론보다는 인식론 수준에서 논쟁이 벌어져 북한연구의 분석보다는 해석에 안주하는 경향³⁶⁾과 이론의 저발전 경향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내에서 내재적 접근논쟁이 가열된 것은 송두윌이 독일판 내재적 접근을 처음 소개할 당시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데 따른 적용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방의 잣대=외재적

3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88), p. 24.

36)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마주치는 첫째 문제는 어떤 사회현상 및 대상에 대해 설명할(descriptive) 것인가 또는 규범적(normative or prescriptive)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학성,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pp. 215~218 참조.

접근', '냉전적 시각=전체주의론=외재적 접근' 등으로 등치되는데 따른 논쟁의 오류도 지적할 수 있다. 독일에서 공부한 학자들 중의 일부에서는 “독일이 원산지인 내재적 접근의 소개는 왜곡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내재적 접근’과 그에 관한 논쟁점은 독일의 ‘내재적 접근’과는 별개로 자가발전했다”는 것이다.³⁷⁾ 내재적 접근과 관련한 “뜨거운 논쟁만큼 그렇게 훌륭한 학술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학성은 그렇게 된 배경적 이유로 첫째, 송두율의 접근법 소개가 매우 미흡했고, 심지어 왜곡되기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루츠는 내재적-비판적 방법론을 경험적 사회연구와 지식사회학 및 해석학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결코 칸트의 인식론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1980년 후반기 이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소위 제3세대 북한학자들은 방법론과 관련된 이론연구에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종석이 밝혔듯이 국내 북한학자들은 송두율과 상관없이 ‘내재적-비판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자생적으로 만들어 냈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성과 당위성 이외에 어떠한 인식론적 기반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조차도 다른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결과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는 연구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방법론의 타당성이 제대로 논증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³⁸⁾

37) 박형중, “독일의 동독연구에서 ‘전체주의론’과 ‘내재적 접근론’”, 『북한연구학회 소식』, 제10호 (1999), p. 11 ;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p. 3. 이국영은 “독일이 원산지인 내재적 접근이 국내의 수용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소개자의 탓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내 학계의 수준과 풍토에도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내재적 접근은 1960년대 전개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과 합리적 비판주의 간의 실증주의 논쟁을 참고하지 않으면 다가서기가 힘들지만, 국내 정치학계의 방법론 논의에서는 이 논쟁이 수용되지 않았다(p. 4)”는 것이다.

38) 김학성, “한국의 통일문제 연구방법: 동향과 과제”,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체제

내재적 접근은 어떻게 보면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북한연구의 인식론 또는 연구 자세에 가깝다.³⁹⁾ 냉전시대 반북·방공 이데올로기를 넘어 새로운 관점과 인식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는 ‘북한바로알기’ 차원의 연구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내재적 접근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아이가 울 때 왜 우는지의 원인을 찾아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를 진단해서 처방을 하자는 것이다. 전체주의 접근법 등을 적용하는 ‘외재적’ 접근론자들의 경우는 우는 아이가 왜 우는지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회초리로 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외재적 접근은 우는 아이는 나쁘다는 선형적 가치판단을 먼저 하고 아이를 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재적 접근을 소개한 송두율은 북한의 내적 작동논리인 주체사상을 이해하면서 비교 사회주의적 접근을 할 때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재적 접근은 북한사회와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제시한 목표와 현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자는 것이다. 바이메(Beyme)에 의해서 내재적 접근 차원에서 소개된 “비교사회주의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성과에 대한 판단을 위한 척도를 과거의 이론접근처럼 외부에서 대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우선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 목표설정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하지만, 그 다음 기능적인 체제비교에 의해 그 목표의 실현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내재적 접근은 냉전시대 왜곡된 북한연구를 바로잡고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 초기에는 북한자료를

전환: 독일과 한국』(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8년 9월 25~26일), p. 34 ; 김학성,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pp. 211~212.

39) 북한연구의 인식론 논쟁에 관해서는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pp. 43~64 참조.

40)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p. 21.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사상 등 북한 사회주의를 북한입장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편향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부의 편향을 문제 삼아 보수우파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을 ‘친북좌파’로 매도하기도 했다. 내재적 접근과 관련한 논쟁도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⁴¹⁾

IV. 북한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북한 일상생활 연구 및 미시적 접근⁴²⁾

1. 일상생활연구 동향

최근 들어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 미시적 접근을 강조하는 연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조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의식 중 하나는 기존 북한연구들이 정치 지도자, 이데올로기, 거시적 노선이나 정책 등에만 집중한 나머지 미시

41) 내재적 접근법의 장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 결함과 한계를 비판한 논문은 주로 강정인에 의해서 제기됐다.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1993); 강정인,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집 (1994), pp. 318~342;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pp. 7~42. 내재적 접근에 관한 논쟁은 주로 송두율, 이종석, 김연철과 강정인 사이에 이뤄졌다. 이에 관해서는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pp. 11~25; 강광식, “북한연구방법론 고찰: 주요 쟁점의 현황과 과제”, 『북한학보』, 제19집 (1995), pp. 1~22 참조.

42) 북한 일상생활 연구 및 미시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동국대 북한학과 북한일상생활연구팀의 홍민 연구교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11권 3호 (2008), pp. 9~57 참조.

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사회 변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담화 중심의 공식문헌에 의존한 분석이 ‘아래로부터’ 주민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탈북자 인터뷰 등 질적 연구를 통해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보려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경향이 대두되기 시작한 배경을 몇 가지로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북한 연구방법론이 가졌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다. 기존의 북한 연구관련 논의들이 주로 내재적-외재적의 이분법 속에서 인식론적인 공방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연구의 질적 도약과는 무관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적인 방법론 차원의 기법과 분석틀 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 전공학문 위주의 이론적 탐색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논의되거나 개발된 이론, 개념들을 적용하려는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이런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2000년대 들어 등장한 제4세대 북한연구자들⁴³⁾이 과거 연구 세대보다 북한과 관련한 이념적 폐쇄성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측면이 있다. 이념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연구의 객관성과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접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둘째,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보다 실체에 가까운 현실을 보고자 하는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아사를 가져온 식량난과 북한체제의 무기력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정치지도자, 이데올로기 연구로는 파악되지 않는 북한체제의 또 다른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 외관 이면에 있는 비공식적인 모습들이

43) 제4세대 북한일상사 연구자로서는 홍민, 조정아, 김종욱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는 연구관심의 변화이다. 이런 접근은 대북 지원이나 경제협력 등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간 접촉기회가 많아지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관계를 매끄럽게 풀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이며 미시적인 북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아졌다.

셋째, 북한연구를 제약하던 연구자료의 제한성이 탈북자들을 통해 일정하게 해소된 측면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제한적이지만 질적 연구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일상이나 미시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높였다. 탈북자들을 통해 그들의 삶과 생활 곳곳의 사정을 파악하게 된 것은 기존에 문헌에만 의존하여 파악하던 북한 사회와는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물론 아직까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는 그 접근방법과 기법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지만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북한 연구의 자료 제한성을 일정부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식량난과 대규모 아사를 겪으며 아래로부터 총체적인 사회 변화에 직면해 왔다. 일상생활세계에서 국가 의존도의 약화와 시장 의존도 증대, 관료문화와 실천코드의 변화, 공동체성과 개인 정체성의 변화, 사회적 연결망 및 정보유통의 활성화, 경제관념 및 심성의 변화, 부와 소유 관념의 변화, 장터문화의 형성, 빈부 격차의 확대와 사회계층화, 가족해체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 및 직장에 대한 태도 및 심성변화, 교육혜택의 양극화, 세대간의 가치변화, 도시 기능과 주거문화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북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미시적 접근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이런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도시 연구,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의 관계, 시장화 수준 등을 주제로 삼는 연구에서 대규모 새터민 인터뷰를 통해 미시적인 사회 변화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

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북한연구에서 ‘일상생활세계’를 학문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론적 탐색을 통해 실제 연구에 적용한 연구는 사실상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사회분야 연구라는 범주 차원에서 ‘일상’이란 용어가 일부 언급되거나 초보적인 개념화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연구의 경향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한 개념화와 접근방법의 모색보다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다룬 연구들이다.⁴⁵⁾ 둘째, 북한 일상생활세계를 개념화하고 접근방법을 이론적으로 모색해 보는 연구이다.⁴⁶⁾ 셋째, 북한체제의 동학과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체제변화를 조망하는 연구이다.⁴⁷⁾ 이들 연구의 공통된 특징은 우선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장화의 확대, 주민 유동성의 증가, 가치의식의 변화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두 번째, 탈북자 인터뷰를 중요한 연구 자료로

44)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45)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남출판, 1995);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6);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선인, 2006);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회문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46)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김종욱,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47)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공식문헌 중 일상을 간접적이나 들여다 볼 수 있는 대중잡지, 문학작품 등에 대한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일상생활세계를 독립적으로 연구 개념화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사회분야 관련 주제의 근거자료로 일상생활을 부수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는 힘든 측면도 있다. 또한 일상 및 미시적 접근에 대한 연구 개념화와 일상과 관련한 다른 전공분야의 이론적 성과를 도입하는 데서는 아직 미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일상을 보는 의미와 일상을 통해 북한의 사회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일상생활연구의 문제점과 한계

기존 연구들은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독자적 개념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상’이란 용어를 사전적 의미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논의 탐색도 없는 실정이며, 이론화 역시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며 단순히 특정 거시적 주제를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용어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선행연구라기보다는 유사 선행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일상생활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전공분야를 연계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시도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단순히 주민생활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사회분야 연구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서 과거 축적한 다양한 개념 및 이론의 탐색과 적용, 새로운 개념화를 통한 방법론의 구축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논의와 체계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루는 주제와 시기의 측면에서도 대체로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시장화 등으로 인한 주민경제생활 변화와 사회적 일탈의 증가를 주로 일상의 테마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에서 일상영역이 갖는 의미를 과거 1990년대 이전부터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상을 제도, 사회통제, 규범, 질서 등과 행위 차원의 다양한 실천, 일상 담론 등이 교차하는 사회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극히 협소한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도 새로운 자료발굴이나 개발보다는 대부분 기존에 주로 활용되어 온 북한 공식문헌을 그대로 인용하여, 정책이나 이데올로기 담론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를 보는 연구들 중에는 새터민 인터뷰를 통한 주민생활 묘사가 많았지만, 대체로 엄밀한 인터뷰 양식이나 구조화된 질문지 등을 통한 체계적 인터뷰 구성은 거의 보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의 동학 및 변화에 대한 관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체제 변화와 일상생활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삼는 연구는 극히 적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유사한 방향의 연구들 역시 체제 변화와 일상생활세계를 연계하는 이론적 모색을 시도함으로써 정치한 분석의 가능성을 열기보다는 주로 이 둘 사이의 개연성 정도를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3. 일상생활 연구의 가능성과 장점

일상연구는 구조와 행위자,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구조-행위자를 연계하는 ‘일상생활세계’의 측면이다. 일상생활 세계는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물질적 조건·제도·질서·규범·규칙 등 구조적 조건이 관철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관계를 통해

그러한 물질적 조건·제도·질서·규범·규칙 등을 해석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재전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상생활세계는 ‘구조적 강제’와 ‘행위의 실천’이라는 두 대립적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런 면에서 일상생활세계는 구조가 재생산되는 미시적 상황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행위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상연구는 사회를 구조화하는 다양한 계기들에 대한 하나의 횡단적인 독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일상연구는 결코 보통의 비판처럼 구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연구 전략이 아니다. 일상이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상을 증발시킨 사회구조의 분석이 전문적 용어의 나열에 그치거나 메마른 숫자의 조합에 그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회구조에 대한 조망이 없는 일상의 분석은 잡다한 사실들의 모자이크에 불과할 뿐이다.

다음으로 거시-미시를 연계하는 일상생활세계의 측면이다. 거시와 미시는 일종의 체제를 보는 연구의 관찰 배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이 추상화 수준을 높여 특징을 추출하고 체제를 전체 맥락에서 조망하는 방식이라면, 미시적 접근은 추상화 수준을 낮추고 전체를 이루는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켜 제도·정책·노선·권력이 생활세계에서 실천되거나 관철·수용·굴절되는 방식을 일상의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세계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기반이며,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행위과정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세계를 본다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제도나 정책의 객관적 외관과 함께 인간 공동생활의 주관적인 의미, 참여자들 스스로가 사회를 체험하는 방식, 그리고 특히 사회의 비공식적이거나 혹은 엄격히 제도화되지 않는 측면에 보다 많은 주의를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구조의 객관적 조건과 행위의 주관적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일상생활세계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북한 주민들에 관심을 가지며 이들이 가진 상식적인 지식과 실천에 주목한다. 물론 상층권력집단이나 엘리트·관료들의 일상생활세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단 공식적 정책 결정 활동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들의 성향과 주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세계, 비공식적 관행에 더욱 주목한다. 다음으로 외부에 있는 관찰자의 관점보다는 주민들 개인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경험세계, 주관적 의미 맥락, 행위를 포착하는 것이다. 끝으로 구조를 배제하고 주관적인 경험 영역만을 보지 않고 이 둘의 상호작용의 맥락을 강조한다.

4. 일상생활연구의 향후 과제

첫째, 북한 일상생활세계를 학문적으로 분명하게 연구 개념화,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개념화, 이론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세계를 단순히 특정 연구주제의 설명변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변수이자 다양한 연구영역, 주제들, 개념들, 이론들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북한체제 해석의 가능성을 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식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개방성이 필요하다. 기존 북한 연구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의 개념, 이론, 연구 성과 등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데 인식론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이룩한 연구성과, 개념, 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다루는 시기와 주제의 측면에서 보다 외연과 깊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시기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를 주로 다루었다면 향후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1990년대 전부터의 지속과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시간적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지속 속에 담긴 구조의 흐름과 행위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기지속적 관점, 사건사적 관점 등 장기 지속 밑에 있는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설정함으로써 일상생활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넷째,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도 기존 문헌자료의 상투적인 인용, 새터민 인터뷰의 무분별한 인용 등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세계 연구에 필요한 문헌자료, 구술자료, 양적 자료, 해외 자료 등을 새롭게 발굴, 재해석, 직접 생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기법 개발이 거의 없는 북한연구 실정을 감안, 문헌을 독해하고 재해석하는 분석기법의 개발, 구술자료 생성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 작성방법, 양적 자료의 체계화, 해외 자료의 주제별 분류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 변화와 일상생활세계와의 상관성을 보다 정밀한 이론적 모델을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체제변화와 일상생활세계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나마 유사한 연구의 경우에도 모호한 개연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면, 향후 연구들은 북한체제의 동학과 변화를 주요 단계별 변수의 설정을 통해 과거부터 향후 체제이행까지 일상생활세계와 연계시켜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북한연구 및 통일연구는 지역연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학의 일부이다. 따라서 북한학은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특수한 사명

을 부여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접근법은 사회현상 분석에 임하는 연구자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스스로의 연구 방향을 잡고 자료선택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정의 체계 혹은 조직화된 개념이다. 사회현상 분석에 있어 이데올로기와 민족문제가 가치논쟁으로 개입할 경우 적절한 방법론 도입이 어렵다. 북한연구에 있어서도 우 편향과 좌 편향을 넘어 새로운 인식론과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연구는 내재적 접근 논쟁에서 본 것처럼 인식론과 방법론이 혼재하면서 방법론 논쟁보다는 인식론 논쟁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치지향적인 인식론 논쟁을 넘어 연구주체에 적합한 방법론을 도입할 때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국가성격 논쟁⁴⁸⁾에서처럼 유격대 국가(정규군국가), 조합주의 국가, 신전체주의 국가, 군사국가 등의 성격규정은 북한국가성격의 일면을 보여준 것으로 모두 일정부분 적실성이 있다.⁴⁹⁾ 마찬가지로 북한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전체주의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일상생활연구 등도 북한연구에 있어서 부분적인 적실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예외주의와 이론적 고립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인식론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서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방법론 선택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큰 틀에서 역사주의와 실증주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연구주체와 분석 대상에 따라 역사-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주의 방법론과 인간행태의 일반법칙성, 구조와 기능을 주로 다루는 실증주의 방법론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론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할 때 소기의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북한연구가 되

⁴⁸⁾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사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⁴⁹⁾ 북한체제 특성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곽승지, “북한체제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p. 13-49를 참고 바람.

기 위해서는 인식론, 방법론, 분석수준, 분석단위, 분석기법 등으로 분석 층위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당과 국가의 억압과 통제 연구에 치중한 전체주의 접근법이 부분적인 적실성이 있지만, 이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파벌갈등, 이익집단갈등 등 북한정치의 동학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지도자 중심체제에서 지도자의 개성(personality)을 무시하는 한계가 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변화의 요구를 무시하기 쉽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의 일상 생활연구는 상부구조중심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북한연구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시-행태연구에 치중하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사·미시사연구는 거시-구조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미시-행태와 거시-구조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꼬끼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비교사회주의 접근도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등 잔존 사회주의 국가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세계경제로의 전면적 편입을 고려할 때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자본주의세계경제로의 편입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갈등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세계체제)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단순화해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연구에서 세계체제분석(세계체제론)의 적용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⁵⁰⁾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세계적인 노동분업구조에 들어가 연

50) 세계체제이론은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자급자족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국가와 시장을 매개로 교역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세계체제)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10% 내외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조건에서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세계체제)로의 편입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경우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에 이어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운영해왔던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하는 과정에 관한 분석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world system analysis)이 유용할 것이다.⁵¹⁾

■ 접수: 2009년 4월 24일 / 수정: 2009년 5월 7일 / 게재확정: 2009년 5월 25일

51) 서재진 외 공저,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서울: 황금알, 2004).

【참고문헌】

- 강광식. “북한연구방법론 고찰: 주요 쟁점의 현황과 과제”. 『북한학보』, 제19집 (1995).
-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1993).
- .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집 가을호 (1994).
- .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고유환.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신문』 제154호, 1999년 4월 12일.
-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선인, 2006.
- 곽승지. “북한체제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7.
- 김남식.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문제점”. 『이대학보』, 1986년 10월 13일.
-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 . “북한연구에서 ‘위로부터 시각’과 ‘아래로부터의 시각’”. 『통일문제연구』, 제8권 2호 (1998).
- 김중욱.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김학성. “한국의 통일문제 연구방법: 동향과 과제”.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체제전환: 독일과 한국』,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8년 9월 25~26일.
- 김학성.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 박동운. “북한연구의 이해와 현황: 정치분야”. 『북한』, 1월호 (1975).
- 박순성 · 고유환 · 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11권 3호 (2008).
-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박형중. “독일의 동독연구에서 ‘전체주의론’과 ‘내재적 접근론’”. 『북한연구학회소식』, 제10호 (1999).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서재진 외 공저.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서울: 황금알, 2004.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회문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2월호 (1988).
- . “북한: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전망”. 『역사비평』, 통권 54호 봄호 (2001).
- .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 스즈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안병영.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경연구』, 8월호 (1975).
- .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제1호 (1977).
- . 『현대공산주의연구』. 서울: 한길사, 1982 / 1989.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1』. 서울: 한울, 1987.
- 와다 하루끼 저. 고세현 역.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 『북조선』. 서울: 돌베개, 2006.
-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 (2008).
-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88.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장경섭 · 박명규. “북한사회연구방법론: 비교발전론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발표문. 1995년 12월 16일.
- 전상인. “북한연구의 역사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 발표문. 1995년 12월 16일.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사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1.
-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 Bruce Bueno de Mesquita · 모종린. “북한의 경제개혁과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 분석”. 『통일연구』, 창간호 (1997).
- C. J. Friedrich and Z.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6.
-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H. Gorde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18, no. 3 (April, 1966).
- .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Revisited.” *World Politics*, vol. 36, no.1 (October, 1983).
- Karl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NY: Harper & Row, 1964.
- Robert C. Tucker.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vol. 17, no. 4 (1955).
- Tai Sung An. “Communist Totalitarianism Revisited.”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7, no.4 (Winter, 1993).

Abstract

A Study of Methodology on North Korean Studies

Koh, Yu-hwan(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view methodology on North Korean Studies, especially totalitarian model approach, immanent approach, everyday life approach.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st totalitarianism commonly emphasized during the 1950s are certainly valid and important descriptions so far as they go, at least of Stanlin's Russia and of other oppressive communist systems, for example, North Korea under Kim Il-sung. North Korea under Kim Il-sung is a living example of totalitarian society. But totalitarian model approach is too static, narrow and substructurally insensitive to evolutionary changes in totalitarianism.

Immanent approach had introduced as a new approach of North Korean studies in 1988. Immanent approach that presented in South Korea has made a false representation of its meanings and subject matters in terms of 'approach'.

This article is to emphasize a study on everyday life as a new perspective of North Korean studies. The everyday life approach is based on the methodological self-reflection on the tendency of prevailing North Korean studies, which placed excessive emphasis on the leadership,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Keywords: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totalitarian model approach, immanent approach, everyday life approach

고유환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한연구학회 부회장·통일부 정책자문위원·한국정치학회·국제정치학회 이사이기도 하다. 주요저서로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변화』(엮음),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학 입문』(공저), 『북한정치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